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의 디자인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전시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Design Satisfaction of Private Signboards on the Sign Management Guideline

김영국, 주연정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Young-Kook Kim(kook1@hongik.ac.kr), Yeon-Jung Joo(serendipity@naver.com)

요약

사설안내표지판은 공공디자인의 영역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돕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하지만 제도화된 디자인 규정이 없는 행정적인 문제와 관리 주체들의 인식 부족으로 무질서한 난립을 초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정보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 도시들은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관리지침을 만들어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선 후 안내표지판의 실질적인 디자인 만족도 검증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설안내표지판의 디자인 관리지침을 만들어 개선 사업을 실시한 대전시를 중심으로 개선 후 표지판의 시각요소, 정보전달, 도시 가로환경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시각요소, 정보전달, 도시 가로환경의 모든 항목에서 개선 후 디자인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만족도의 실증적 조사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중심어 : |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 | 디자인 만족도 | 안내표지판 관리지침 |

Abstract

As a part of public design, private signboard should be designed to help convenience of people with the consideration of urban landscape simultaneously; however, the lack of legislated design regulations and ignorance of managing entities have resulted in uncontrolled installation of private signboards, ruining city view and causing confusion in delivering information. To appease this problem, each provincial city including Seoul is carrying out an improvement project based on its own sign management guideline. Therefore, it is timely needed to study the design satisfaction on the changed (or changing) private boards from the viewpoints of information delivery and visual environmen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esign satisfaction of private signboards in Daejeon city (where very recently the improvement project has been undergoing based on its design guideline) in terms of visual factors, information delivery, and city landscape. We note that our study has its own significance to provide an empirical research on the design satisfaction of private signboards, which shows that people are mostly satisfied with the new design from aspects of visual factors, information delivery, and city landscape.

■ keyword : | Private Signboards Improvement Project | Design Satisfaction | Sign Management Guideline |

* 본 연구는 201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습니다.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적, 정보 문화적 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기간에 많은 경제발전을 통해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나 경제성장에만 초점을 맞춘 양적인 성장으로 인해 도시환경의 미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못했다[1]. 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 디자인(Public Design)’이라는 개념이 부각되면서 디자인의 개념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도시환경과 정보시스템 같은 공공의 디자인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

특히 공공 디자인 영역 중의 하나인 사설안내표지판은 공공시설, 또는 관광 휴양시설들의 관리 주체가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가로에 설치하는 안내표지이다. 사설안내표지판은 그동안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만 부담하면 개인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존 방식이 무허가 표지판을 양산하고, 공적 영역에 사적 시설물을 설치하는게 당연하다는 관행으로 이어져왔다. 이는 사설안내표지판의 무질서한 난립을 초래하였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정보 혼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설안내표지판의 시각적 공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도로법을 모범으로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규칙’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만들어 일제정비에 나섰다. 표준디자인 매뉴얼에서는 크기, 서체, 색상 등을 통일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각 구청별로 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2011년까지 전체 사설안내표지판 1만2315개 중 불법 표지판 3598개를 철거했고, 허가대상 표지판 4379개를 교체하였다. 2012년까지 서울시 전체 70% 정도의 사설안내표지판이 교체 되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설안내표지판의 제작·설치 매뉴얼을 만들고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대전은 2011년에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관리지침 제정안을 만들고, 개선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만 사설안내표지판의 주요 목적인 정보전달 및 가로의 시각 환경 개선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과 안내표지판 관리지침의 디자인 만족도의 연구가 부족하고 관 위주의 개선사업진행 및 행정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안내표지판의 크기, 형태, 색채, 서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은 정확한 정보전달과 쾌적한 시각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을 진행 중인 대전시를 중심으로 관리지침에 따른 표지판의 시각요소, 정보전달, 도시 가로환경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대전시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지침의 디자인 만족도를 조사하기에 앞서 사례 조사로 서울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사업 현황 및 해외 사설표지판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서울시는 2008년부터 선도적으로 사설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관리지침을 제작해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정확한 정보전달과 쾌적한 도시 가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대전광역시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과 현황을 살펴본다. 그리고 대전시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표준모델의 세부사항을 살펴보고 적용사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개선사업이 진행된 사례를 바탕으로, 대전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을 통한 디자인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시각요소, 정보전달 효과, 도시가로환경에 대해 개선 전 후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는 대전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개선사업에 따른 사설안내표지판의 디자인 및 정보전달력에 대한 만족도 등 종합적인 결론 도출 및 향후 방안을 모색한다.

II. 본 론

2. 시설안내표지판의 사례조사

2.1 서울시 시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

서울시의 ‘시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은 잘 읽혀지는 도시를 지향하고, 도시 정보가 빠르게 이해되도록 과학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안내표지는 서울색(SC : 1995)과 서울서체인 ‘서울남산체B’를 통일 적용해 서울의 정체성을 살리도록 했으며, 표지판의 크기는 800mm(가로)×170mm(세로), 설치 높이는 2.5M로 정해 보행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도록 했다.

그림 1. 서울시 시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정보는 핵심 위주로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내용을 시설명(한글, 외국어), 거리, 방향표시, 픽토그램으로 한정했다. 또한 구형 별로 제작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부품을 모듈화하고 조립방법, 재질, 제작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통일성과 경제성을 높였다.

서울시 시설안내표지판의 개선 전 후의 가로 환경 변화 사례는 [그림 2][그림 3][3]과 같다.

그림 2. 서울시 시설안내표지판 개선 전

그림 3. 서울시 시설안내표지판 개선 후

서울시는 심미성, 가독성, 정체성, 최소화, 조화성의 키워드를 도출하여 개선사업을 통해서 합리주의 정신이 반영된 세련되고 품위있는 도시경관 연출을 기대하고 있다[4].

2.2 해외 시설안내표지판사 사례조사

해외에서는 일찍이 ‘읽기 쉬운 도시(Legible City)’를 지향으로 시설안내표지판들에 ‘통합성, 효율성, 가독성, 도시의 정체성, 합리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영국의 브리스톨은 1980년대부터 공공디자인을 개선해 쾌적한 도시로 탈바꿈했다. 시 당국은 우선 불필요한 안내표지판의 정보를 제거하고 필요 정보는 통합해 가로상황을 단순화, 최적화했다. 브리스톨의 길 찾기 사인은 안내지도와 유도사인이 함께 표시된 도시의 상위 정보에서 하위정보까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정은 글자 형태와 크기, 배색까지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또 주요 공공기관이나 지리적 정보가 바뀌면 즉시 교체할 수 있게끔 사인의 부품들이 표준화돼 있다[5].

그림 4. 영국 시설안내표지판. 브리스톨 (좌), 런던(우)

3. 대전광역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사업의 개요

대전광역시는 2010년 사설안내표지에 대해 특별한 디자인 규정이 없어 각양각색의 표지판이 도로의 경관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사설안내표지판의 표준화를 위해 디자인 관리지침을 제정하였고 이후 2011년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관리지침 개정안을 만들고 대전시 서구를 중심으로 보도(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침 목적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도해양부 예규 제 167호)’에서 규정된 사항 중 사설안내표지의 「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설안내 표지의 규격, 색상, 형태 및 설치방법 등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 가로경관 개선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적용 대상은 크게 산업교통분야, 관광휴양분야, 공공공용분야로 나누며 산업교통분야에는 공항, 여객자동차터미널, 역, 지방항만 휴게소 등이 있고 관광휴양분야에는 관광 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온천, 유원지, 사적지, 명승지, 체험마을 등이 있다. 공공공용분야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도서관, 학교 및 유치원, 종합병원 교회, 사찰, 성당 등이 있다.

대전시 사설안내표지판의 디자인 표준모델은 다음과 같다[6].

3.1 표지의 크기

가) 표준형 사설안내표지의 규격은 1,200mm(가로)×330mm(세로)로 한다

나) 표준형 표지의 크기 변경

- (1) 도로관리청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인지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가로 또는 세로 규격을 표준크기 이하로 설치 허가 할 수 있다.
- (2) 도로관리청은 주변표지판과의 통합·연립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도심외곽지역(개발제한구역, 농림·계획관리·자연환경보존지역 등 도시화 외 지역)에 단독 설치되는 표지판에 한해 안내시설의 위치, 특성 및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규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지판의 규격은 1,200mm(가로)×500mm(세로)로 한다.

3.2 표지의 색상

가) 표지판색(일반형)

- (1) 적용대상 :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중 산업·교통 분야 표지와 관광지형 표지 색상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공용분야 표지에 적용한다.

Munsell HV/C	10YR 3/1
	L*a*b	30.77 1.86 6.04
	sRGB	94 86 78
	CMYK	19 23 26 46

그림 5. 표지판색 (일반형)

나) 표지판색(관광지형)

- (1) 적용대상 :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중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및 이에 준하는 공공·공용분야 시설에 적용한다.

Munsell HV/C	10R 3/6
	L*a*b	30.20 26.60 20.26
	sRGB	115 52 41
	CMYK	0 80 60 60

그림 6. 표지판색 (관광지형)

다) 지주색 : 표지판(일반형)과 동일 색상 사용

라) 안내문안 및 도안의 색상 : 하양(흰색)

3.3 글자의 크기 및 서체

표지의 표준규격(1,200mm×330mm)적용시 한글, 영문, 한자 및 숫자는 다음의 글자체, 크기, 장평, 자간을 적용한다.

표 1. 글자의 크기 및 서체

문자	글자체	크기(pt)	장평(%)	자간	
한글	한길체	410	100	0	
영문	Dinmed Regular	210	95	-30	
한자	한길체	260	100	0	
숫자	한길체	210	90	-100	

*비고 :일러스트레이터 기준

3.4 표기내용

- 가) 안내에 필요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정보만 간략하게 표기 한다
- 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방향 및 거리, 상징마크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서는 안된다
- 다) 상징마크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된(KSA 0901)공공 안내 그림표지 가운데 안내 시설에 해당하는 그림표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픽토그램 또는 안내시설의 기관 로고 등으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3.5 표기방법

- 가) 시설명은 한글, 영문(또는 한자)동시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표지판 양면에 같은 내용을 표기하여 통행 양방향에서 표지판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한글, 영문, 한자, 숫자는 글자크기 및 서체에서 규정한 장평과 자간(일러스트기준)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이 배열한다.

그림 7. 전면 표기

3.6 설치방향

보도가 설치된 시가지부에서는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20cm 이상 되도록 지주를 설치하여 표지가 차량 통행의 위험요소가 되지 않게 한다.

그림 8. 표지판의 올바른 설치 방향

3.6 적용예시 및 설치 이미지

그림 9. 대전시 시설안내표지판 개선 전

그림 10. 대전시 시설안내표지판 개선 후

4. 대전시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의 만족도 조사 방법 및 평가 항목 선정

4.1 디자인 만족도 조사대상

대전시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의 디자인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가장 범용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및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산업·교통분야, 관광·휴양분야, 공공·공용분야의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대상 중 공공·공용분야에 해당되며,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비교적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 시설물의 표지판 개선 전 후 사진을 만족도 조사에 사용하였다.

4.2 디자인 만족도 조사방법 및 절차

대전시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설문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Likert Attitude Scale)와 응답자의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고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12월9 부터~12월11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73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방법은 SPSS for window 2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방법,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다.

4.3 디자인 만족도 평가항목의 선정

만족도 설문지 평가항목으로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전반적인 이해와 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과 사설안내표지판의 시각요소, 정보전달의 효과, 가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항목, 인구 통계학적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설문문항 작성 시에는 전문가 2명과 준전문가 3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지판의 시각요소 평가항목으로는 표지판의 형태, 색채, 크기, 서체, 문자(상호 명)의 크기, 재질로 선정하였다.

표 2. 설문조사의 구성내용

범주		설문항목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성별, 연령, 직업
사설안내표지판의 전반적인 이해		표지판 이용의 기준, 중요성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관련 항목		대전지역 안내표지판 개선사업의 인식 현황
만족도	사설안내표지판의 시각요소	형태, 색채, 크기, 서체, 문자의 크기, 재질
	정보전달의 효과	사설안내표지판 시각요소의 정보전달 효과
	가로환경	도시가로환경에 대한 만족도

정보전달 만족도 평가항목은 표지판의 가독성, 명확성, 표준성, 시설표기항목의 적절성, 시설 위치파악의 용이성으로 선정하였고 가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김현정, 백진경, 이경미가 간판 시각요소의 정보전달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국디자인포럼, 2009)에서 사용한SD Scale을 이용한 심미성, 쾌적성, 통일성, 조화성, 상징성등 7가지 형용사쌍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3. SD Scale 평가항목

No.	SD Scale	
1	아름다움	추한
2	쾌적한	불쾌한
3	정돈된	복잡한
4	통일감 있는	통일감 없는
5	조화로운	조화롭지 못한
6	독특한	평범한
7	지역성을 반영한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한

5. 사설안내표지판의 디자인 개선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 결과

5.1 사설안내표지판의 개선사업 인지 및 표지판의 일반적 인식

5.1.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연령분포도를 보면 30대가 34.2%, 20대가 28.8%, 10대가 13.7%, 40대가 9.6%, 50대가 8.2%, 60대가 5.5%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57.5%, 여자가 42.5%로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학생 38.4%, 전문직 19.2%, 주부 13.7%, 사무직 11%, 자영업 9.6%, 관리직 6.8%서비스직 1.4%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5.1.2 사설안내표지판의 문제의식 조사

좋은 안내표지판의 기준으로는 “눈에 잘 띄어야 한다” 58.9%,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야 한다” 34.2%, “디자인이 좋아야 한다” 4.1%, “정보가 많아야 한다” 2.7%로 나타났다.

그림 12. 좋은 안내표지판의 기준

안내표지판을 볼 때 우선순위는 “방향표시” 39.7%, “시설명” 31.5%, “거리표시” 16.4%, “색채” 11%, “상징마크” 1.4%로 조사되었다.

사설안내표지판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10점 만점에 평균 7.52점으로 시설물을 찾을 때 사설안내 표지

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안내표지판을 볼 때 우선순위

표 4. 설문조사의 구성내용

	평균	표준편차
사설안내표지판의 중요성	7.52	1.334

5.1.3 사설안내표지판의 개선 후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
개선 된 표지판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기 위해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사업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 41.1%, 모른다 58.9%로 나타났다.

그림 14. 안내표지판 개선사업 인지여부

개선 전과 비교했을 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조금 잘 되었다 56.9%, 보통이다 25%, 매우 잘 되어 있다 12.5%, 조금 잘못되었다 2.8%, 매우 잘못되었다 2.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은 간판의 요소, 정보전달의 주목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표지판의 형태, 시설요소의 적절성, 표지판의 크기,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의견은 정보전달의 주목성, 기타 순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5. 안내표지판의 개선 후 만족도

표 5. 사설안내표지판의 개선 후 만족도 조사결과

No.	평가항목	응답 빈도	
		긍정적	부정적
1.	정보전달의 주목성	41	3
2.	주변환경과의 조화	17	0
3.	표지판의 형태	6	0
4.	시설요소의 적절성	3	0
5.	표지판의 크기	2	0
6.	기타	0	1

5.2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의 디자인 만족도 분석결과

사설안내표지판의 디자인 만족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시각요소 만족도, 정보전달 만족도, 도시가로 환경의 만족도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개선 전 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 분석을 실시 독립변인은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전 후이며 종속변인은 시각요소 만족도, 정보전달 만족도, 도시가로환경의 만족도 항목으로 하였다.

5.2.1 시각요소 측면에서 본 만족도 결과

시각요소 측면의 만족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표지판의 형태, 색채, 크기, 서체, 문자(상호명)의 크기에서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유의확률 $P<0.001$). 표지판의 재질에 관한 질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유의확률 $P<0.001$) 이는 설문을 할 때 예시 사진으로만 안내표지판의 재질을 정확히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개선 전 후의 시각요소 측면에서 볼 때 개선 후의 시각요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시각요소에 대한 개선 전 후 만족도 ANOVA분석 결과

변인	개선전 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제곱	F	유의 확률
표지판의 형태	개선전	3.16	0.866	24.658	36.808	0.000
	개선후	2.34	0.768			
표지판의 색채	개선전	3.22	0.786	20.719	32.200	0.000
	개선후	2.47	0.818			
표지판의 크기	개선전	3.40	0.954	35.507	36.224	0.000
	개선후	2.41	1.025			
표지판의 서체	개선전	2.58	0.783	10.126	16.980	0.000
	개선후	2.05	0.762			
문자(상호명)의 크기	개선전	2.79	0.833	11.514	14.942	0.000
	개선후	2.23	0.921			
표지판의 재질	개선전	2.90	0.785	6.333	10.255	0.002
	개선후	2.49	0.787

그림 16. 시각요소에 대한 개선 전 후 만족도 결과

5.2.2 정보전달 측면에서 본 만족도 결과

안내표지판의 정보전달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지판의 가독성, 명확성, 표준성, 시설표기항목의 적절성, 시설 위치파악의 용이성에서 모두 개선 전에 비해 개선 후에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 차이는 유의미적인 차이로 여길 수 있다 (유의확률 $P<0.001$). 다만, 표지판의 가독성과 명확성 측면에서의 만족도 향상이 다른 나머지 요소의 만족도 향상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선 전의 표지판의 크기와 상호명이 개선 후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가 나온 것으로 가독성과 명확성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7. 정보전달 효과에 대한 개선 전 후 만족도 ANOVA분석 결과

변인	개선전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제곱	F	유의확률
표지판의 가독성	개선전	2.67	0.728	6.164	11.969	0.001
	개선후	2.26	0.708			
표지판의 명확성	개선전	2.62	0.700	7.014	12.633	0.001
	개선후	2.18	0.788			
표지판의 표준성	개선전	3.21	0.999	48.329	57.185	0.000
	개선후	2.05	0.832			
시설표기 항목의 적절성	개선전	2.97	0.928	28.055	39.501	0.000
	개선후	2.10	0.748			
시설 위치 파악의 용이성	개선전	2.97	0.881	15.130	19.103	0.000
	개선후	2.33	0.898

그림 17. 정보전달 효과에 대한 개선 전 후 만족도 결과

5.2.3 도시가로환경 측면에서 본 만족도 결과

도시 가로환경의 만족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아름다운, 쾌적한, 정돈된, 조화로운, 독특한에서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지역색을 반영한 측면에서는 개선 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선 후의 안내표지판의 도시가로환경 측면에서 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고찰 검토되었다.

표 8. 도시가로환경 효과에 대한 개선 전 후 만족도 분산분석 결과

변인	개선전 후	평균	표준편차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아름다운/추한	개선전	3.38	0.810	39.562	66.476	0.000
	개선후	2.34	0.731			
쾌적한/불쾌한	개선전	3.42	0.912	67.130	96.193	0.000
	개선후	2.07	0.751			
정돈된/복잡한	개선전	3.56	1.033	93.444	123.370	0.000
	개선후	1.94	0.669			
조화로운/조화롭지 못한	개선전	3.79	0.942	81.377	107.224	0.000
	개선후	2.30	0.794			
독특한/평범한	개선전	3.67	0.867	15.781	19.081	0.000
	개선후	3.01	0.950			
지역성을 반영한/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선전	3.75	0.983	11.514	11.444	0.001
	개선후	3.19	1.023

그림 18. 도시가로환경 효과에 대한 개선 전 후 만족도 결과

III.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대전시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관리지침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개선 후가 개선 전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설안내표지판의 중요성이 10점 만점에 7.52로 표지판이 시설의 위치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선사업의 인지도는 시민의 참여와 홍보 없이 관 위주로 시행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41.1%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여 사설안내표지판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시설을 찾는 데 중요하게 이용하고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좋은 사설안내표지판의 기준을 “눈에 잘 띄어야 한다(58.9%)”, “주변 환경과 어울려야 한다(34.2%)”를 가장 높게 평가 하고 있었고 사설안내표지판의 개선 후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긍정적인 이유도 정보전달의 주목성(58.3%), 주변 환경과의 조화(23.6%)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개선 후의 사설안내표지판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좋은 안내표지판의 조건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시각만족도 측면에서는 표지판의 형태, 색채, 크기, 서체, 문자(상호명)크기에서 모두 개선 후의 만족도가 개선 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특히, 표지판의 크기에 관한 만족도가 가장 두드러지게 향상되었다. 이는 개선전의 사설안내표지판의 크기가 대체로 큰 것이 도시 환경을 해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전달 만족도 측면에서는 표준성이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기존의 무질서한 안내표지판을 형태, 크기, 레이아웃 등을 통일 시켜 표준성을 갖추므로 안내표지판의 정보 인지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표준성을 통한 인지력의 향상으로 정보전달의 주목성이 높아지고 눈에 잘 띄어야 하는 좋은 표지판의 중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도시가로환경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정돈된”, “조화로운”, “쾌적한”의 순서로 높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표지판의 표준성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개선 후 표지판의 도시환경과의 높은 조화성은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야 하는 안내표지판의 중요한 요건을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지역성을 반영한, 독창성 측면에서의 만족도 향상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표지판의 표준성과 통일성에 높은 초점을 맞추다보니 색채와 형태가 단순해지기 쉽고 독창성과 심미성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역성에 대한 조사 결과 시민들은 표지판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에 높은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어 표지판에서 지역색을 나타내는 것은 큰 의미

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내표지판에 심미성, 독창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면 더욱 좋겠지만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하는 좋은 안내표지판의 기준이 “눈에 잘 띄어야 한다”와 “주변환경과 잘 어울려야 한다”는 조건임을 고려했을 때 대전사설안내표지판 관리지침의 디자인 만족도는 높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전시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관리지침에 따른 표지판의 시각요소, 정보전달, 도시 가로환경에 대한 디자인 만족도의 실증적 조사였던 것에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설문지 안내표지판을 가로에서 직접 보며 현장에서 설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설안내표지판의 산업·교통분야, 관광·휴양분야, 공공·공용분야의 설치 대상 중 공공·공용분야에 해당하는 안내표지판만 조사대상으로 제한되어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추진되는 사설안내표지판 교체사업에서는 이러한 연구 분석을 토대로 추가 보완하여 진행하면 향상된 안내표지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추후 만족도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현정, 백진경, 이경미, “간판 시각요정소의 정보 전달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국디자인포럼, p.311, 2009.
- [2] 최원수, 권재경,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옥외 리테일 스토어 사인보드 광고의 문자체 표현형식과 도시 이미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p.524, 2008.
- [3]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463&act=VIEW&boardId=463
- [4] 서울특별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 2008.
- [5] <http://blog.naver.com/sunbeamsky?Redirect=Log&logNo=70105631932>
- [6] 대전광역시, *사설안내표지판 디자인 관리지침*, 2011.

저 자 소 개

김 영 국(Young-Kook Kim)

정회원

- 1993년 2월 :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미술학석사)
- 1997년 5월 :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미술학 석사)
- 1998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교수

<관심분야> : 그래픽디자인, 편집, 타이포그래피

주 연 정(Yeon-Jung Joo)

준회원

- 2007년 : 충남대학교 산업미술대학시각디자인 전공(미술학사)
- 2011년 9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석사과정)

<관심분야> : 그래픽디자인, 타이

포그래피, 편집디자인